

# 대한 가정학회의 활동상

<이제까지의 발전을 더듬으며>

표 경 조

전 본회 회장·숙대 감사

1947년 5월 고고한 첫 탄생의 외침 소리로 부터 가진 애로를 다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는 학회의 발 자취를 도리켜 보건대 어언 13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13년의 춘풍추우는 어제 같이 지났건만 학회 자체로써 걸어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무척 역사가 긴 것 같기도 하다.

뜻을 같이 하여 우리의 가정생활을 좀 더 낮게 만들어 보자고 발족을 하고보니 모 든 것은 돈이 앞을 가로 막게 되고 회생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느 때나 어느 회를 막론하고 뜻한 바를 달성하려면 누구든지 그 회 자체에 모 든 정력을 쏟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각기 소 임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 하고 또 이 회를 위하여 힘을 쏟는다는 것 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학회 사무를 볼 사무실이 없어서 이 곳 저 곳으로 서류를 옮기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연락할 통신비용이 없어서 간부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좋은 강연 회와 강습회를 계속하고 싶어도 장소와 비용 관계로 중단 될 때도 있었고, 6.25 사 변으로회는 마비되고 회원의 존재조차 아득한 사정들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러 는 가운데에 우리 학회는 자라고 각도에 지부들을 가지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국제 학회에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몇 구분으로 나누어서 돌이켜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 대 가정학회 (大家政學會)로 발전 하는데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 I. 학회의 창립과 환도 (1947—1953)

### ① 창립 총회 (1947년 5월)

## 대한 가정학회의 활동상

1945년 제2차 대전 종막과 더불어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간 이 땅에는 민족의 얼을 찾는 세찬 소리에 우리 가정과 교육계에도 우리식 살림살이를 가르쳐야 하겠다는 소리가 경향 각지에 힘차게 부르짖게 되었다.

이 때를 즈음하여 우리들 몇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여 1947년 5월 성신여고(誠信女高)에서 창립 총회를 본 것이 바로 이 가정 학회이었다.

그 당시 당선된 임원으로는

회 장	조 기 흥	임 원	표 경 조	이 명 운
부 회 장	박 용 경	정 회 로	유 영 춘	이 순 애
상임간사	조 창 속	조 자 호	장 애 회	김 분 옥
	이 신 자	박 유 분	김 인 식	이 기 열

이 때는 군정시대로서 Miss. Haplon이란 미국 여성이 문교부에 가정과 교육에 고문으로 있었다. 이 사실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과 교육에 많은 힘이 되어서 문교 행정에 있어서 가정과에 대한 직제(職制)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고 가정과 교육의 지도서 가정학의 연구 기관 등의 필요성을 더욱 더 느끼도록 하였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학회 발족의 이유가 되었다.

이 때 학회 사무소를 회장이 근무하던 성신 여학교에 두고 Haplon 여사로 부터 물심 양면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부쳐온 많은 참고서의 기증을 받았고 여러가지 종류의 양복감의 직물의 원조를 받았다. 이 때 우리나라 사정은 해방 후 섬유 종류의 생산이 되지 않고 특히 양재 방면의 기술 발취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무렵이었던 때이다. 이 원조 물자는 곧 각 학교 별로 분배되어 그 제작품의 발표회도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었으나 사변으로 이루지 못하였다.

### ② 제 2 회 총회 (1949년 9월)

숙명 여고에서 개최 되었다.

#### (1) 임원들의 개선

회 장	조 기 흥		
부 회 장	표 경 조		
상임간사			
서 무	조 자 호	조 창 속	
회 계	이 기 열	이 신 자	
임 원	노 증 봉 (제 3)	김 종 순 (문교부)	정 회 로 (제 2)
	최 귀 란 (무소속)	박 유 분 (동 덕)	이 명 운 (경 기)
	박 용 경 (진 명)	이 순 애 (동 덕)	박 남 길 (이 화)
	김 분 옥 (사 대)	김 인 식 (정 신)	장 애 회 (제 2)
	유 영 춘 (덕 성)		

(2) 활동 상황

- (a) 학교별로 가정과 연구 수업을 하였다.
- (b) 육아법, 영양, 경제학, 미용, 건축, 정치, 한글 속성, 메주 제조법, 궁중요리의 강습회
- (c) 방적 공장, 모범 주택등의 견학
- (d) 1948년 대한 민국이 수립되고 Miss. Haplon 여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1959년에 한국 가정학회로 하여금 미국 가정학회(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에 외국학회로서 가입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 때로부터 한국 가정 학회(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는 국제 학회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③ 재정 관계

1949년 제2회 총회시 1948년도 회계 보고를 보면 잔금이 13,251원이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첫째 재정확립이 되어야 하므로 기금(基金) 모집 운동을 전개하여 간부들이 매인당 5원환식 모금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학회로서 기관지(Journal)를 하나 발간 하여 볼까 하고 각 학교측을 비롯하여 개인에게도 특별 찬조금 특별 회원등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아래 여러분의 찬조를 받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숙종씨 (성신교장)	20,000	송금선씨 (덕성교장)	20,000
문남식씨 (숙명교장)	20,000	손정규씨 (서울대여학생처장)	20,000
황신덕씨 (중앙교장)	20,000	최경진씨 (특별회원)	10,000
김성달씨 (풍문교장)	20,000	최복희씨 (특별회원)	10,000
김봉란씨 (특별회원)	20,000	김은수씨 (특별회원)	10,000
최귀란씨 (회원, 특찬)	20,000	최애경씨 (회원특찬)	10,000
표경조씨 (회원, 특찬)	20,000		

이상의 특별 찬조비와 1950년 6월까지의 회비등을 합하여 약 30여만원의 예금이 회원 여러분의 활동으로써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었으나 뜻하지 않았던 6.25 사변으로 모든 서류와 기금등이 분실되고 회원은 남한 각처로 분산되어 피란 3년 동안은 그대로 학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안부조차 막연하였던 것이다.

(이상 모든 보고는 다행히 필자가 개인으로 소유하였던 서류들이 있어서 참고가 되었음)

Ⅱ. 학회의 재건(再建)

① 제 3 회 총회 (1954년 5월)

1953년 10월 1일 정부가 환도함과 더불어 전국 각처로 산재되었던 여러 회원들이 서울로 돌아오게 되고 한 겨울을 지나 봄이 되고 보니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

### 대한 가정학회의 활동상

었다. 따라서 학회의 재소집을 뜻하고 1954년 5월말에 현 창덕여고에서 비로서 환도후 학회 총회(제3회)를 소집하였다. 소식이 궁핍하였던 여러분이 약 60명 참석하였다.

다시 살아 만난 반가움과 감격에 참석한 사람들로써 회를 진행하여 임원 개선을 한 결과 이하 여러분이 당선 되었다.

명예 회장	조 기 흥	교육부장	현 기 순
회 장	표 경 초	연구부장	주 정 일
부 회 장	송 옥 선	계몽부장	윤 서 석
〃	주 월 영		
총 무	최 귀 란		

학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추천을 해 주었으나 참으로 막연 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빼앗은 그 6.25 사변은 우리 학회도 큰 타격을 입었다. 참고 서류와 개씨 모아둔 기금이 다 없어지고 겨우 회칙 몇권과 발족시 회원들의 이름을 적은 책 한권을 가지게 되었다.

1954년 6월 10일에 경기여고에서 간부회를 소집하여 위선 당장에 쓸 통신 비용이 없어서 간부들의 주머니를 털어 뭉은 돈이 8,000환 이었다. 이것이 기금이 되어서 여러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회비를 거두고 신 회원 들에게 입회비를 받고 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였다.



(여러 방면의 손님을 모시고 학회 재출발을 자축하는 광경)

환도후의 학회의 사명은 너무도 할 일이 많았다. 첫째 실습실을 잃고 중점 주의 교육으로 영어 수학 국어 등 방면에 빼앗긴 가정과 시간을 찾도록 하여야 하며 이 러기 위하여는 감독 관청인 문교부로부터 각 학교의 교과 과정과 시간 배치에 대 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하고 각 학교 기관장님들의 이 방면 교육에 대한 깊은 이 해가 요구되었다.

두째 파멸된 여러 가정의 재건과 전란후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 경제적 가정살 림을 지도하여야 하는 일이었다.

셋째 널리 학회의 존재를 알려 많은 회원을 획득하도록 각도에도 지부를 두도록 하는 일이었다.

넷째 재정을 확립하여 학회사무소를 적당한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 하는 것.

다섯째 국제 학회와 연락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는 것

이상의 목표로 학회를 재건하는 동시에 가정과 교육과 가정생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간부 여러분들의 열의는 이하 여러가지의 성과를 거두었다.

(1) 6월 하순에 문교부의 장 차관 각급 과장, 각 대학장, 각 중 고등 학교장 여 러분을 현 문리사대의 전신인 근화여자대학(槿花女子大學)에 모시고 자축회를 열 고 학회의 재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 력을 요청하였다.



(강습회에 모인 회원들)

#### (2) 강습회와 강연회

저명인사와 학회원들 중에서 좋은 강연을 듣기도 하고, 연구 발표도 듣기도 하고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각 광별 강습회를 개최하여 일선 선생님들의 실력 보충 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3) 견학

방직 염색 비니루 고무 등의 공장과 세탁소 여러가지 종류의 모범주택 견학

(4) 계량 Cup과 Spoon을 제작하여 각 대학 여학교실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5) 월경대(月經帶)를 제조하여 각 여학교에 배부 판매하여 여학생의 위생, 용의 단속에 도모하였다.

(6) 방송

일반 가정 주부 지도를 위하여 매주 가정 시간을 맡아서 방송하였다.

(7) 학회 월보 발간

(8) 가정과·용어 제정 (문교부와 공동협력)

(9) 회원 확보를 위하여

각 대학 가정과 졸업자 졸업 축하겸 신회원 환영회를 개최하다.

(10) 미국 가정 학회 대회 참석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미국 가정 학회로부터 사변중 학회 소식을 궁금히 느낀다는 편지를 재미 유학중인 이기열씨로부터 편지를 받고 환도후 재건과 활약의 소식을 전하였던 바 1955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개최되는 46회 총회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받고 현기문씨와 본인이 중앙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표로 결정되고 김봉란씨가 읍씨버로 가기로 결정하여 I.C.A. 원조로 3인이 도미하여 Minnesota 주 Minneapolis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석하고 미국 정부의 계획으로 미국 농촌 가정 교도사업을 연구하고 시찰하였다.

(11) 유급 상임간사(有給常任幹事)를 비로소 채용하였다.

(12) 학회 사무소(學會事務所) 결정

출판사 장왕사(章旺社)의 후의로 종로 2가 화신 뒤에 독립 사무소를 두고 책상의자등 제구를 준비하여 비로써 결방사리의 학회 사무를 면하였다.

2. 제 4 회 총회(總會) (1956년 2월)

매년 총회는 여름 방학 동안에 하기로 회칙에 되어 있으나, 회장등 도미 관계로 동기 휴가로 연기하여 2월 5일 수도 여자 사범 대학(首都女子師範大學)에서 개최하였다. 일반 임원의 개선은 없었고 회칙일부를 수정하여 재정부(財政部)를 신설하여 부장으로 최애경(崔愛卿)씨를 추천하였다. 이때 시내 각 가정과 대학과 여학교의 작품과 조자호(趙慈鎬)선생의 한국 다과 출품 그리고 본인이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참고서 조리 실습 기구등의 전시회가 있었다.

(1) 1956년 3월 가정과 졸업 신회원 환영회

(2) 1956년 3월 국제 영양학회 보고 강연회 (채예석씨)

(3) 재봉침 기계 기증(裁縫針臺)

한미재단(韓美財團)으로 부터 1956년 5월 학회의 활동상항에 공명하여 Singer 재  
 봉기 5대를 기증 하여 왔다.

**3. 제 5 회 총회 (1956년 8월)**

8월 10일 서울문리사범대학(서울文理師大) 강당에서 제5회 정기 총회를 열고 아  
 래와 같은 임원들을 개선 하였다.

회 장	표 경 조	교육부장	장 명 옥
부 회 장	주 월 영	연구부장	이 인 회
//	//	최 이 순	윤 서 석
총무부장	방 인 도	재정부장	최 애 경

이 회기간 중요사업으로 이하 몇가지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1) 학회 사무소 매입(學會事務所買入)**

학회의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려면 우선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하 여러분의 협조로 1959년 11월 종로 3가 묘  
 동(廟洞)에 대지 12.5평 건평 11평의 건물을 130만원으로 매입하여 집을 이사하고  
 안정하였다. 사실은 연구부장 이인회씨의 알선으로 인척인 차득실씨가 학회의 고  
 층을 알고 시가보다 싸게 양도해 주었다. 한편 그의 소유로 있던 신촌 소재의 시  
 가 200,000만원 짜리의 농장 250평(간이 주택이 있음)을 학회 소유로 기증해 주었  
 다.

재건 학회 기금을 위하여 원조해 주신 분들.

진명여고	20,000환	여상여고	20,000 환
이화 //	20,000 //	숙명여고	20,000 //
배화 //	20,000 //	서울문리사대	20,000 //
중앙 //	20,000 //	수도여사대	20,000 //
창덕 //	20,000 //	장 완 사	100,000 //
성신 //	20,000 //	김 봉 란	300,000 //
신광 //	20,000 //	합	660,000 //
상명 //	20,000 //		
동덕 //	20,000 //		

최애경	김달생	김은수	김인숙	한점남	최귀란	
김정수	이인회	최이순	김봉란	윤서석	이남순	이상 여러분이 500,000환
주월영	방인도	박승남	표경조	조기홍		

**(2) 학회사무소 매도(賣渡)와 전전(轉轉)**

겨우 1년 동안을 우리의 소유 독립사무소로 지냈던 학회는 다시금 이 독립사무  
 소를 내 놓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봉착하였다. 학회사무소를 위한 기금 116만원중

100만원만 가주(家主)에게 지불하고 남은 돈은 그 동안 학회비용(人件費 학보대기타)에 쓰고 미지불액 50만원을 두고 갚으려고 하였으나, 매월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고 50만원이라는 거액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는 가주의 사정으로 1957년 11월 부득이 이집을 처분하여서 자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85만원에 처분하여 50만원 잔금치르고 15만원이 학회의 기금으로 남게 되었으나 사무소 구득이 어렵게 되었다. 그 돈으로 적당한 곳으로 구하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매월 경상비용이 어렵게 되겠으므로 부득이 모든 살림을 끌고 본인의 집 사랑 일부를 사무실로 쓰기로 하고 한 겨울을 지난 1948년 4월에는 이남순 간부의 알선으로 반도호텔 마준편 중앙지대로 이사하여서 교통상 여러 회원들의 편이를 도모하고 지냈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오래 계속하여서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가을이 되고 보니 또 사무실을 내어 달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자초지종으로 잘 아는 이인희 간부의 호의로 그택에 방 하나를 비워서 모든 이사짐을 그곳에 두고 학회 사무를 보게 되었다.

(3) 실력 보충을 위하여

(a) 강습회...여름방학 동안에 염색 꽃꽂이, 서양요리, 양재, 한국요리, 실내장식 아동교육, 농촌 가정교도 등에 관하여

b. 견학...모범주택, 각종 공장

(3) 학보(學報)발간, 2회 3회를 발간하였다.

(4) 지부(支部) 설치

경북 경남 전남 충남

(5) 농촌가정교도 국제 대표자 강습회 참석. 겸 국제가정학회 제 9차 총회 참석 1958년 6월 28일—9월 30일까지, 최이순 주월영 표경조 3인이 I.C.A. 초청으로 참석하였다.

4. 제 6회 총회 (1958년 10월 30일)

회장 부회장들의 도미 관계로 정기총회 기간인 여름을 지나 10월 말에 덕성여대에서 개최하였다.

대회시 회칙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 식, 주, 육아, 가정경제 등의 5부를 두제하고 대회에서 각 부장과 중앙 위원을 선출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정부장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임	원	회	장	최	이	순	총	무	박	남	길
		부	회	장	송	옥	선	재	정	김	인
		“		이	기	열	서	기	이	태	현
							간	사	이	정	원



각 부 장

중앙위원

피복부	김 분 철	최 이 순	한 점 남	장 명 옥
식물부	현 기 순	김 현 실	표 경 조	송 옥 선
주택부	이 인 회	주 월 영	이 흥 수	김 영 옥
아동부	최 이 순	조 기 흥	김 락 신	박 용 경
경제부	이 남 순	김 분 옥	현 병 진	박 남 길

이상 여러 간부들의 뜻은, 책임진 이 학회의 일을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성과를 거두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여러 사람들이 학회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회장이 직접 개별적 방문도 하고 전화로 연락도 하고 월례회에 많은 회원이 모이도록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두째 학회 이름 그대로 학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얻는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발표회 강연회 소품공작 빠사회등을 개최하여 일선 지도자에게는 지식의 근원을 주고 가정 부인들에게는 가정생활 운영에 있어서 당장의 필요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넣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셋째 학회 재정(財政)을 원금 130만원에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기는 커녕 플러스가 되도록 하려고 회원들의 회비 증수의 노력 빠사회 개최로 재정적 증가를 위하여 각 부장들의 희생적 노력이란 눈물겨운 일이었다. 그 덕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참고의 지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건 판매로 편리를 도모하였고 순리의 후자가 생기도록 하였음은 순전히 위원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넷째 학회 발족 이래로 꿈 꾸어오던 학보(學報)를 책으로써 발간한다는 것 막상 출판을 해 놓고 보면 여러가지의 장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되고 보면 원고 수집의 애로와 출판 비용 조달의 고생이란 이것을 당면하는 당사자들이 아니고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애로를 거듭하는 가운데에 학회는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초로 가정학을 전공한 동지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인양 싶으며 여러분의 이 정성이 노력 부디 끊이지 마시고 계속하시와 우리의 가정생활이 문화와 민주(民主)의 토대 위에 바로 잡혀서 진실로 참된 가정들이 이루어지도록 사소한 개인의 불편 불리의 소아(小我)를 버리고 보다 큰 대아(大我)의 궁지에서 학회를 빛내도록 바라는 바이며,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는 학회 나이 50년 100년 될 때의 우리들은 살아져도 남겨둔 이 사업을 이어 받은 우리 딸들의 감격을 예기하면서 가정학을 전공한 우리들의 필생의 사업으로 노력하시기를 나 먼저 맹서하고 여러 회원에게도 간청하는 바이다.

(10월 10일)